

## 和順 雙峰寺의 三層殿

申 榮 勳 — 文化財委員會 專門委員

## 1

1962년 여름에 태풍이 大作하였다. 전에 없었던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쳐서 여러가지 피해를 입힌 중에 우리의 木造建築物에도 큰 損傷을 입혔다. 그중에 宝物 第163號로 지정되어 있는 全羅南道 和順郡 梨陽面 甌里의 雙峰寺 大雄殿도 지붕이 돌아가는 큰 상처를 당하였다. 나는 1962년 8월 25일에 시작되었던 金堤의 金山寺 彌勒殿(三層建物)의 應急工事を 끝내자마자 이 雙峰寺로 옮겨 大雄殿(上樑文에서는 三層殿이라 하였다. 이하 三層殿이라 指稱함)의 해체공사를 지켜보았다. 工事監督官이라는 직함이다. 文敎部長官의 명의로 발령하고 和順郡의 教育課(이 시기는 5·16革命 이후 教育委員會가 폐지되고 郡教育課라 하여 行政하였었다.)가 主管하여서 施工의 主務는 教育課가 처리하였다. 따라서 工事監督官의 소속은 文敎部 文化財管理局의 專門委員이지만 給料는 和順의 教育課에서 工事期間 동안 지불하는 제도였다. 그래서 틈 있을 때마다 和順郡庁에 들러야 하였는데 이로 인한 웃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다.

5. 16軍事革命 이후 화폐개혁이 단행된 직후여서 和順郡에서의 工事發注로는 첫 사업일뿐 아니라 당시로서는 和順郡內의 最高額數가 랭크된 사업이고, 더구나 庶政刷新을 지표로 삼고 있어서 監督官의 動靜을 주시하였다. 和順郡庁에 들렀다가 나오면 눈에 뜨일만큼 미행하는 기미가 감지되었다. 늘 이 지경이었다. 어느날은 이 미행자를 따돌리기로 작정하고 同行하였던 사람과 짜고 작전을 수립하였다. 지금은 光州에서 和順間은 터널이 뚫려 大型의 버스가 수시로 오고가지만 그때만 해도 터널도 없었고 버스도

매우 드문드문하여 기차를 이용하는 쪽이 편리하였다.

나는 同行과 더불어 기차시간이 아직 남았는데도 기차역으로 나갔다. 미행자가 누군인지를 알아내기 위함이다. 아직 시간이 이른 기차역은 한산하여서 서투른 미행자는 곧 우리들 눈에 정체를 들어 내었다. 和順警察署의 형사라 하였다.

줄을 서서 기차표를 샀다. 光州行표를 산 것이다. 저녁 통근열차가 되어서 제법 駅構內는 붐빈다. 기차는 느리게 발차하기 시작한다. 얼른 반대편으로 뛰어 내렸다. 그리고 숨었다. 미행자는 기차에 탄채 光州로 가고 있었다. 그 바람에 우리 둘은 밤 늦게야 걸어서 光州에 도착하였고 지쳐서 슬며시는 계획은 포기하고 말았다.

和順에서 雙峰寺로 가자면 光州에서 始發하거나 경유해 오는 宝城行의 기차를 타고 가는데 완행은 梨陽驛다. 읍 간이역에 서지만 보통급행은 梨陽驛에만 선다. 여기에서 내리면 꼬박 30리길을 걸어 山行하여야 된다. 두 시간이 넘는 길을 現場 사람들을 위하여 구입한 부식들을 무겁게 들고 걷는다. 더러 짜증도 나지만 그래도 그 길을 한달에도 몇번씩 왕복을 하였다.

雙峰寺는 궁벽한 절이어서 당시에는 境内에 建物도 이 三層殿과 極樂殿· 察舍가 있을 뿐이고 이영을 이은 虛間 같은 건물도 一棟 더 있었을 뿐이었다. 寺僧은 오직 한사람, 어머니를 모시고 절을 지키고 있었다. 일년에 어찌다 外地人이 찾아드는 그런 한적한 절이다. 그러나 雙峰寺는 新羅統一期の 末期에는 아주 著名한 절로 九山禪門 중의 하나이며 서기 798년에 탄생하여 825년에 唐나라에 유학하고 847

년에 귀국하여 景文王을 불법에 歸依시킨 澈鑑禪師가 駐錫하던 곳이다. 868년에 禪師께서 入寂하시자 門徒들은 浮屠(塔)와 塔碑를 세웠는데 이 浮屠는 國宝 第57號로, 塔碑는 宝物 第170號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三層殿 이웃의 이 石造物들은 아주 귀중한 9세기의 作品이며 더구나 浮屠에 표현된 木造建築樣式의 존재로 인하여 이들은 더욱 珍重되고 있어 이 방면의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면 으레 찾아가는 巡禮處의 한 곳이 되어 있다. 이 石造浮屠에 대하여 간단한 논문은 1963년도 『考古美術』(考古美術同人會刊行的 會誌)에 발표한 바 있다. (『澈鑑國師浮屠의 木造樣式』 同誌 4卷1號 形狀을 설명한 내용이다.)

## 2

三層殿은 流砂로 매몰되었을 정도로 낮은 외벌땃돌 위에 세워졌다. 외벌땃돌은 화강석을 다듬은 장대석 외벌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쪽 중앙에 石階가 설치되어 있다. 整然한 신라시대의 구조물이다.

매몰되어 있는 이 땃돌을 1962년도 공사시에 발굴해서 찾아내었는데 땃돌의 남쪽 마당에는 門址로 보이는 遺構가 또 있었다. 이는 우리가 찾아내어야 할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매몰된 상태로 묻어두었는데 이것은 장차 寺域을 탐색하는 기회에 정밀하게 발굴조사 되어야 할 것이다.

땃돌 위의 三層殿은 初層도 二層도 三層도 正面 側面이 一間인 單間의 규모이다. 初層은 짧은 기둥을 큼직하게 써서 꾸몄다. 前面壁을 全面開放하고 四分閣(창살로 꾸민 문짝이 좌우에 각 두짝씩, 네짝으로 구성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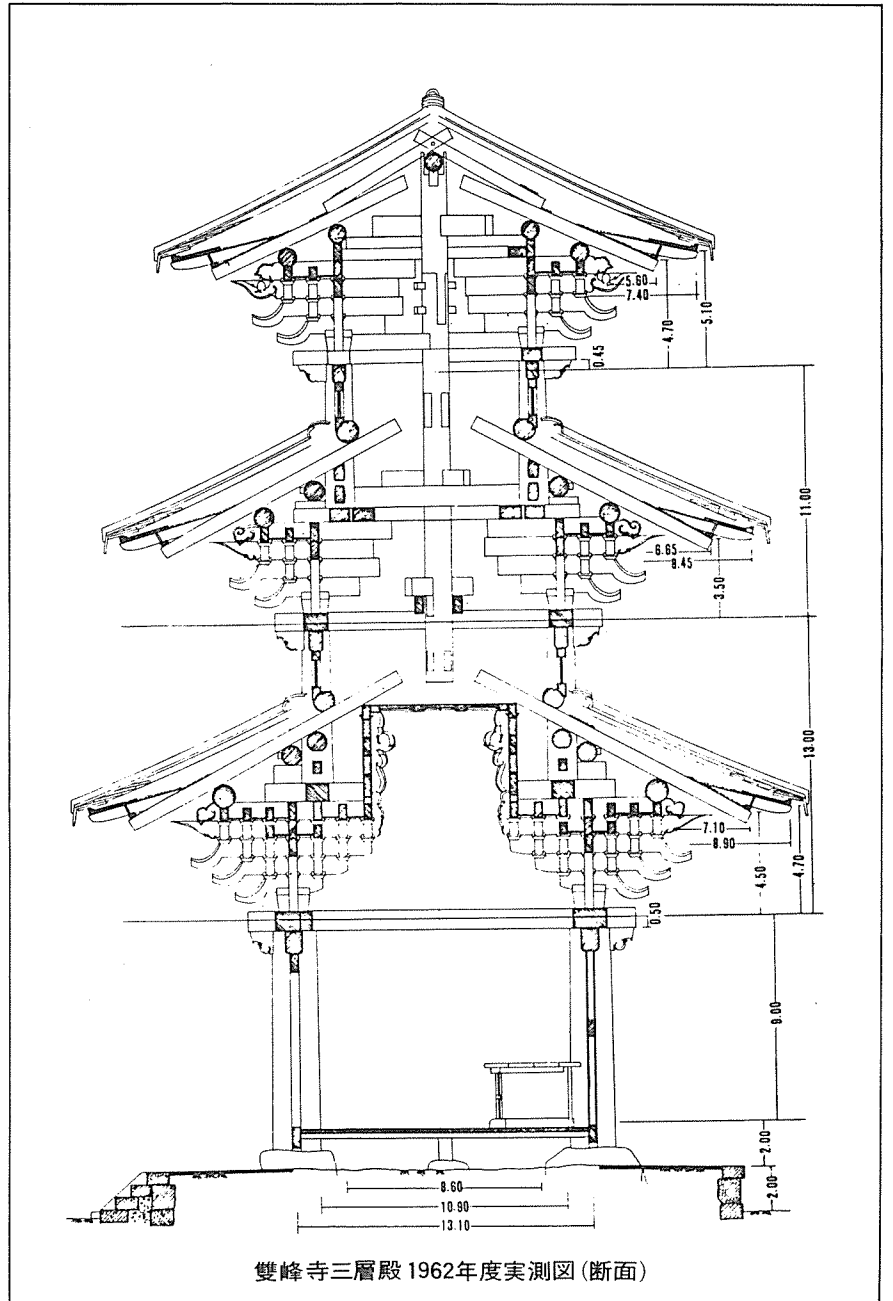
좌우 끝의 문짝은 문벽선 들찌귀에 結索되어 開閉되고 가운데 문짝은 끝 문짝의 올개미에 박힌 들찌귀에 의지하고 여닫힌다. 창살만인 것과 창살 아래로 청판을 끼운 것 두가지 종류의 문이 있다.)을 달았다. 문을 열고 들여다 보면 중앙에 불단이 있고 불상이 奉安되어 있으며 천장이 설비되어 그 이상의 架構는 숨겨져 있다.

네 기둥 위로는 창방과 평방을 짜들리고 그 위에 공포를 얹었는데 이른바 多包系樣式의 구성이다. 内外로 三出目を 갖는 구조이다. 공포는 기둥 바로 위에 각각 하나씩 놓여 귀공포가 되고 그 사이에 또 二組의 공포가 배열되었다. 기둥 위에만 공포를 구성하는 양식을 柱間包系라 부르는데 비하여 기둥 사이에도 더 많은(多) 공포를 배열하였는데서, 즉 공포가 많다는 뜻에서 多包系의 공포라 부른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造語로 學問上 假稱하고 있을 뿐이지 옛 이름은 아니다. 옛 大木들이 이 양식을 어떻게 指稱하였는지에 관한 知見은 아직 内外學者들에게 所見이 없다.

공포를 계산하는데 포작이란 말을 쓴다. 몇포작이냐는 것인데 이 포작이란 낱말은 文典들에 보이는 옛 이름이다. 三포작·五포작·七포작·九포작이 있는데 이것의 구성은 出目を 몇개로 잡았느냐에 따라 造成된다. 그래서 公式이 생겨났다. 이 公式은 金東賢氏(文化財研究所의 保存科學室長)와 더불어 空間誌에 「韓國 古建築斷章」이란 글을 30餘回 연재할 때 둘이서 궁리하여 定式한 것으로 포작의 수를 셀 법이 서로 달라 사맛디 아니하므로 그를 통일하기 위하여 새로 만든 것이다.

三포작이 되려면 出目은 하나이어야 한다. 즉 一出目이면 三포작이 구성되는 것이다. 二出目이면 五포작이 되고 三出目이면 七포작이 되는 것이므로 이 공식은 「출목의 數×2+1=포작의 數」라는 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예컨대 二出目이면 「2×2+1=5」라고 되어 五포작이라고 계산된다는 것이다. 三出目이면 「3×2+1」이 되어 七포작이 된다. 四出目이면 「4×2+1」이 되어 九포작이 되는 것이다.

다포계의 공포가 배열되어 도리틀



받고 그에 의지하여 서까래를 걸고 부연을 받았다. 겹처마이다. 부연없이 서까래로만 구성된 것을 홑처마라 부른다. 현재로서는 겹처마 이상의 유례는 찾지 못하고 있어서 처마구성의 兩大山脈은 홑처마와 겹처마이다.

처마가 귀에서 90度角으로 꺾이는 부분에 추녀와 사래가 설치된다. 추녀는 귀공포에 걸려 귀기둥에서 45度角을 지니며 앞으로 돌출되는데 처마 깊이와 相關된다. 홑처마일 때는 추녀만으로 완성되나 겹처마이면 부연에 따라 사래가 만들어져 걸구된다. 귀(隅)가 구조되는 것이다. 이 三層殿에서는 깊은 처마를 구성한 추녀와 사래를 지탱해 주기 위하여 추녀를 떠받드는 活柱를 세웠다. 처음부터 意匠

된 補強의 시설이다.

처마를 구성하면 지붕도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골기와를 이었다.

二·三層의 기둥은 짧다. 初層에 비하여 약 1/4에 해당할만큼 짧게 잡혔다. 또 柱間도 初層보다 좁다. 三層은 二層의 柱間보다도 더 좁다. 이것을 체감기법이라고 부른다. 높아질수록 좁게 잡으면 전체의 윤곽이 균형 잡혀 보여 安定感이 월등하게 된다. 이 체감의 기법을 石造塔婆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각 시대의 石塔들에서 그 점을 볼 수 있다. 比例値는 시대마다에 특색을 지닌다.

### 3

三層殿은 체감된 모습이나 구조된

형상에서 塔婆와 같은 감각을 지녔다. 木造의 塔婆인 것이다. 石造한 塔婆에서도 三層의 것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결국 三層殿의 三層木塔이라 할 수 있다.

文獻에 木造塔에 관계된 기사들이 많다. 그러면서도 현존하는 木塔이 없다. 木塔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石塔을 통하여 推想하여 볼 수 있을 뿐이다. 황룡사 九層塔이나 四天王寺·望德寺의 木塔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의 궁금증을 풀어줄 遺構들이 없다. 겨우 澈監國師浮屠 등에 표현된 木造樣式 등의 단편적인 자료가 얻어질 뿐인데 이런 三層殿이 존재하므로 해서 木塔의 체감기법과 중심 刹柱의 구성법을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木塔의 한 예는 또 법주사 捌相殿에서 살필 수 있다.

三層殿의 構成法式은 특이하다. 밖에서 보아서는 感知할 수 없는 法式이 内部에 발휘되어 있다.

추너는 아다시피 앞머리가 도리 밖으로 돌출하여 허공에 떠있게 結構된다. 추너는 지붕구성의 中樞로 기와이는 落水面의 荷重을 떠받는 역할을 한다. 이 무거운 추너 앞머리를 앞으로 거꾸러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추너 뒷몸을 길게 잡아 그 뒤쪽을 눌러준다. 衡平을 이루게 함이다. 저울대 같이 하려는 것이다. 머리카 뒷몸에 같은 무게를 실어줌으로 해서 結構에 무리가 없게 하자는 法式이다.

三層殿에서는 單間的 柱間이 좁으므로 前出한 추너머리에 비하여 추너 뒷몸을 길게 만들 여유가 없다. 그만큼 머리쪽이 무겁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교정할 필요가 요망되었다. 그래서 大木은 중심에 刹柱를 설치하는 지혜를 짜내었다.

刹柱는 擦柱라고도 하고 心柱라고도 부르는데 『三國遺事』에 보면 황룡사 九層塔에도 이 刹竿(柱)이 설치되었던 모양이다. 현재의 遺址에서도 중앙에 心礎石이 있는 점(이 心礎石은 거대한 岩石인데 최근 發掘期間 동안 필요에 의하여 解體하게 되었을 때 포항제철에 의뢰하여 200톤 크레인을 빌어다 겨우 들어 내었다. 이 心礎石에는 舍利裝置하였던 舍利孔이 있다. 舍利裝置는 나쁜 사람들이 盜取하여 갔고, 그 일부의 잔재들이 수습된 바

있었다.)에서 그것이 확인되는데 木塔에 心柱를 설치함은 옛부터의 法式이었다.

三層殿에서는 大木의 지혜로 이 心柱를 空中에 띄웠다. 心礎石을 두고 心柱를 세우는 法式 대신에 心礎를 없애고 心柱를 初層 천장 위쪽에 밑둥이 위치하도록 허공에 띄우고 그 心柱에 각 추너의 뒷몸을 박았다. 初層에서 三層까지의 추너, 各層 네개씩의 추너 뒷몸이 모두 心柱에 삽입되게 하였다. 이렇게 結構하면 추너머리가 밑으로 내려가려는 무게로 추너뒷몸이 치솟게 되므로 心柱가 허공에 떠오르게 된다. 心柱의 자체무게와 三層屋蓋를 받드는 荷重을 실은 무게로 추너 뒷몸을 눌러주게 되어서 드디어 衡平이 이루어지며 心柱는 공중에 떠서 적절하게 무게의 안배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놀라운 지혜인 것이다.

지금 三層의 지붕은 팔작지붕의 모양이다. 원래의 塔이라면 모뎀지붕이 되어 相輪을 떠받을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解體時에 조사된 바로는 지금의 팔작지붕은 後代의 변형이라고 밝혀졌다. 原形은 팔작지붕이 아니었다. 아니었다면 보편적인 법식에 따라 相輪部를 받을 수 있는 지붕모습이 원래의 것이었다고 理解할 수 있게 된다.

#### 4

처음 이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 언제쯤 지었던 것일까. 첫번 지은대로 수백년 지탱하기란 어려운 노릇일테니 틀림없이 고쳤을 터인데 그것은 어느 시대였을까? 하는 궁금증은 집을 볼 때 느끼는 의문이다. 알고싶고 알아내고 싶은 충동에 손바닥에 땀이 땀다. 三層殿 수리시에도 이 호기심을 발휘하였다.

解體에 앞서 정확한 實測을 先行하였다. 金周泰·俞門龍팀이 1962년 10월 1일부터 착수하여 1개월간 실시하였다. 지금 널리 퍼진 實測圖面이 이때에 제작된 것이다. 金·俞兩人是 지금도 文化財委員會의 專門委員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 방면의 中進들이다. 이 實測調査를 통하여 기와에 새겨진 銘文과 三層에서 발견된 墨書銘과 종이에 써넣은 上樑文이 밝혀졌다.

기와에 새겨져 있는 瓦銘 중에서 암막새의 銘文들 중 흥미있는 내용의 것

은 이렇다.

① 崇禎八年(「표는 一行을 의미함) 乙亥四月日 雙峰」大施主金八莊方莫士兩主(下略)

② 崇禎」八年九月日」雙峯寺造瓦(下略)

③ 飯主海云」康熙二十五年」丙寅二月□海(下略)

④ 雍正伍年」丁未三月日」(左書)(下略)

⑤ 乾隆」四十五年三月日」大都監(下略)

이들 글 중의 崇禎八年은 仁祖13年(1635)이고 康熙二十五年은 淸나라 聖祖의 年號로 우리나라 肅宗12年(1686)에 해당하며 雍正伍年은 淸의 世宗年號로 英祖3年(1727)이다. 乾隆四十五年은 庚子年인데 우리나라 正祖4年(1780)에 해당한다. 쌍봉사에서 만들어진 기와들인 것이다.

三層殿 三層의 宗道里에는 「雍正二年歲在甲辰三月日上樑竣之觀者開而感焉」라고 먹으로 단정하게 쓴 墨書銘이 있었다. 이 도리에 길이 9.6寸·폭 1.8寸·깊이 2.9寸의 홈을 파고 竹筒을 넣었다. 上樑文은 竹筒 속에 密封되어 있었다. 狀紙(길이 167cm·폭 22.2cm)에 楷書體로 반듯하게 썼는데 첫머리에 「三層殿記」라 하였다. 102行으로 쓴 全文은 『考古美術』誌(3卷12號)에 「雙峰寺大雄殿上樑文(三層殿)」이라 하여 내가 소개한바 있으므로 여기에서 또 옮겨 쓸 겨를이 없는데 그 末尾에 「雍正貳年甲辰」이라 써서 이 기록이 조선조 景宗4年(1724)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내용으로 보아 이때에 三重創(다시 지었다는 뜻. 重修하였다는 의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기록은 寺傳하는 「雙峰寺事蹟記」의 내용과도 부합되고 있어 지금의 三層殿은 1690년대의 作品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雙峰寺 三層殿의 조사와 工役始末에 대하여는 「雙峰寺通信1~3」이라 하여 역시 『考古美術』에 연재한바 있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이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미루어 오면서 修理報告書를 刊行하지 못하고 있다. 좋은 기회가 있어 이의 간행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